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9일 개장

매주 토요일 '남도달밤야시장'으로 새단장...푸드장터·스마트관광체험·전시·공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올해는 흑서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 '남도달밤야시장'으로 새 단장하고, 광주의 주말 밤을 시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첫 개장일인 9일에는 푸드장터, 스마트 문화예술 체험, 음악 공연, 개장 특별 미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푸드장터는 상인이 운영하는 부스를 배치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한국식 기와를 덧입힌 예술적인 푸드마차가 새롭게 들어서며, 야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함께하는 시민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만들기 물레 체험, 핸드페인팅 체험 등도 마련돼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강 현실(AR) 메타버스 관광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이날 남도달밤야시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음악

공연도 열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그룹, 전통문화 예술단, 오페라단이 펼치는 팝과 클래식 음악, 전통 소리와 무용이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설전시 공간인 수작과 한평갤러리에서는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는 고승영 작가, 심보현 작가 등 광주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남도달밤야시장은 이번달엔 9일과 16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며,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날씨, 기온 등을 고려해 일부 시간을 조정하고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또 추석, 핼러윈, 다문화 등 다양한 테마형 야시장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광주시는 토요일 야시장 외에도 수작과 한평갤러리 미술작품 전시와 판매, 별별상상정원 푸드클래스 체험과 문화체험 행사 등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

외하고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수작에서는 체험형 예술컨텐츠를 공동 개발해 참여자가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진행하며, 한평갤러리에는 주제별 작품전시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예술가들과 시장상인의 커뮤니티 공간인 별별상상정원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인예술시장을 방문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문화쉼터로 운영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남도달밤야시장에서 코로나19로 억눌린 마음을 해소하고, 달빛과 예술,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대인예술시장은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 한국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지역 대표 예술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WEET 2022' 개막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2' 개막식이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정승일 한전 사장, 시의원 등 내빈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나령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갯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갯벌관리위원회 발족...정책 자문·현장 소통 창구 역할 기대

전남도가 체계적 갯벌 보전관리를 위해 정책 자문과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전남도 갯벌관리위원회'를 6일 발족했다.

갯벌관리위원회는 대학, 도의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전남연구원, 민간단체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전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임기는 2년이다.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한다.

특히 국립갯벌습지정원 기본구상,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 현장과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개발압력에 대한 갯벌 보전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게 된다.

전남도는 위원회 발족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도 갯벌보전관리 정책방향과 현안 ▲국립갯벌습지정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한국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의미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 얼마나 모일까 434억

도, 연구용역 결과 모금액 예측...재정 확충 도움 기대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되면 전남에는 434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규모도 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지역에서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향이 무려 18곳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된데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만으로는 기부금제가 열악한 재정 확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전남도를 중심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될 경우 전남은 약 434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반영한 수치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모금한 기부금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시장 규모도 130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조사 대상 시·도 가운데 전남의 기부금이 가장 많았고 강원(364억), 충남(309억), 경남(276억), 경북(256억), 전북(247억), 충북(194억), 제주(180억)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최근 3년 간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은 게 '고향'인 전남에 기부하려는 의사표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일명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해 복구 행정절차만 1년 넘게 걸린다니...

전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 개혁 건의

전남도가 6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하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단계 협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법에 '14일 이내'로 명시해 줄 것을 요

청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난 6월 말 김명록 전남지사가 구례 서시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에서 정부에 규제개혁 건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시천은 섬진강 지류 하천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도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단축해 지난 5월 말 공사에 들어가 피해 재발 방지에 힘 쓰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상황관리, 순찰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